

# 해양정책연구

## Ocean Policy Research

Vol.13

1998 여름

### 目 次

권 두 언	바다를 보전하는 정치권/이상돈	1
연구 논문	Shipping Policy and the Firm's Strategic Objectives/강종희	5
	항만운송사업의 조업규모와 성장률과의 관련성 분석/정봉민	21
	연안소형어선 관리정책의 순응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최동현 · 장학봉 · 최재선	33
	품질경영체제 및 선박안전경영체제의 비교연구 -ISO 9002 및 ISM Code를 중심으로/조동오	65
	Economic Value of Domestic Tidal Wetlands /이흥동	91
	세계항만개발의 기조변화와 우리나라 자유무역 지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김학소	113
	지역 연안통합관리체제의 성공적 구축방안 /이원갑 · 남정호	143
	이질적 복수서버를 갖는 혼잡 컨테이너터미널의 선박관련 시간분포 추정/박병인	171
	수중문화유산보호를 위한 해난구조법의 적용 문제와 새로운 법제의 검토/박성욱	185
부 록	해양정책연구 총목차(창간호~12권)	203



---

 卷 頭 言
 

---

## 바다를 보전하는 정치

이 상 돈(李相敦)\*

1998년은 해양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로 뜻있는 한해로 기억될 것 같다. 우선 새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공중분해될 뻔했던 것부터가 그러하다. 사실 어느 나라건 정부 조직은 논리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정치적 사정에 의해 결정되어온 바가 크다. 미국만 하더라도 상무부가 해양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닉슨 대통령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단 행정조직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서 다소간 문제가 있더라도 웬만하면 기존 조직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적 행정 조직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하지만 생겨난지 1년 밖에 안된 해양수산부를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해체해서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으로 원상 회복시키려 했던 것은 참으로 황당한 발상이었다. 여하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직도 바다를 가볍게 보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가 자주 있었지만 바다가 선거 쟁점이 된 적이 별로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상수원 보호 등 환경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지만 바다와 관련된 환경논의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

새만금 간척사업만해도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새만금 사업은 제2의 시화가 될 운명이 분명하다. 아니 새만금은 시화지구 매립보다 몇 배나 더 무모한 일이 틀림없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갯벌과 바다를 없애는 것도 그렇거

---

 \*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니와 도무지 그 넓은 매립 예정지에 채워넣을 흙도 없는 형편이니 말이다. 현재 계획된 대로 매립을 하려면 부근의 고군산열도를 몽땅 부셔 채워 넣어야 한다는 계산이니 그 무모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설혹 고군산열도나 변산반도의 채석장을 부셔 매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넓은 땅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새만금호는 시화호처럼 오염돼 있을 것이니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이렇게 초기 투자를 무모하게 많이 하면 부지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마련이고, 그렇게 비싼 땅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도 채산성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이야말로 한보철강, 청주 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에 이은 기념비적인 대실패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이 이런 정해진 길을 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정치권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새만금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라서 다른 곳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은 새만금 사업이 우선 그 지역의 바다와 연안에 큰 영향을 줄 것인데도 지역에서 별다른 반대 여론이 일지 않는 점이다. 아마도 그 사업이 당장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새만금뿐 아니라 연근해의 오염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론이 모두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팔당 상류에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서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보도가 있자 정부가 상수원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연안의 바다 속은 쓰레기 더미라는 보도가 TV를 통해 몇번씩 나가도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바닷물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상수원 수질오염에 비한다면 연안오염은 덜 화급한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인식의 차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시나 하천과 바다를 보는 데 본질적인 견해 차이가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 말하자면 바다는 그저 오물을 버리는 거대한 쓰레기통이고 쓸데없는 공간이니 매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낫다는 정도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고 또 북쪽은 막혀 있기에 바다를 넘거나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는 바다를 뛰어넘고 바다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를 이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착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바다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는 인색했다. 그래

서 연근해 바다는 육지에서 흘러온 오폐수와 쓰레기, 양식장에서 내다 버린 폐각, 폐기처분한 어선과 어구 등으로 넘쳐 흐르게 되었다.

작년에 한·일 양국간에 일본의 새 영해법을 두고 어업 분쟁이 심각했을 때 일본에 대해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은 그 나라 국회의원들이 바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라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구 출신 의원이 꽤 많을 것인데도 바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의원은 별로 없다. 지난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오염된 보스턴 항이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민주당 후보는 메사추세츠 주지사이던 두카키스였는데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더럽게 오염된 보스턴 항을 TV 광고에 내보내면서 이 것이 환경을 앞세운다는 민주당 후보의 앞 바다 모습이라고 공격했던 것이다. 이 사건 후 두카키스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졌고 부시는 여유있게 당선되었다. 부시가 과연 환경대통령이었나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었지만 자신의 앞 바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냐고 한 부시의 전략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셈이다.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나 바다를 관리하고 보전하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국회와 청와대를 차지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또 그런 때가 와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